

보도해명자료 (‘13. 10. 2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원전 제3검증기관 선정 ‘주먹구구’(‘13.10.26, 경향)에 대한 해명

1. 기사내용

- “제3 재검증기관(Lloyd社) 선정절차상 ①입찰제안서상 요구조건인 원자력분야 기기검증 실적이 없음에도 만점으로 통과시키고, ②입찰 마감시점 기준인원(15명)은 최소 기준인원(17명)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채용하겠다는 업체 말만 믿고 합격시켰다”는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

- ① 당초 입찰제안서상 참가자격은 (1)공인 검사기관, (2)공인 시험기관, (3)공인 기기검증(EQ)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됨(원자력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실적을 모두 인정)

⇒ Lloyd社는 (1)공인검사, (2)상용품 공인시험(CGID) (3)기기검증 실적을 충분히 제공하여 참가자격이 있다고 평가됨

* ‘입찰 안내서’의 기기검증에 대한 설명(“IEEE 323과 하위 규정을 따른다”)은 향후 제3검증기관의 업무내용이며, 입찰 참가자격과 관계 없음

- ② Lloyd社는 입찰 당시 총 38명(Lloyd社 19명+외부전문인력 19명)의 수행인력 계획을 제출하였으며, 최종 총 34명(Lloyd社 15명+외부전문인력 19명)의 인력이 확보되어 인력상 문제가 없음

* 통상 국제기관은 국내외 전문인력 참여를 통한 Project Team을 구성함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문상민 팀장 (02-2110-4879)